

깨끗한 바다환경을 위하여

해양국인 조선에서는 바다환경보호사업을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진행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조정할 사명을 지닌 중앙해양환경보호조정소가 조직되었다.

주체100(2011)년 9월에 창설된 중앙해양환경보호조정소는 지난 여러 해동안 나라의 경해와 강하천들에서 발생하는 배에 의한 오염을 신속히 제거하고 오염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있다.

《깨끗한 환경, 즉시대응》을 자기 활동의 리념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정소에서는 국가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에 따라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경해와 강하천들에서 일어나는 오염사고들을 즉시 대책하고있다.

조정소에서는 해상에서 일어난 여러차례의 기름루출사고들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대로 줄이였다.

조정소에서는 배에서 루출되는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나라의 수역과 항들에 드나들거나 항해하는 배들로부터 배출되는 물질들과 배들에서 리용되는 물질들이 기준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평가를 비롯하여 배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감시측정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보호와 련관이 있는 국제기구들과 비정부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있다.